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강릉에서 펼쳐질 ITS의 미래

강릉 ITS 세계총회를 향한 준비

ITS 세계총회는 '교통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 산업 비전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이후 유럽·미주·아시아를 순회하며 개최되어 왔으며, 한국은 서울(1998)과 부산(2010)에 이어 2026년 강릉에서 세 번째 ITS 세계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국내 ITS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바 있다. 강릉 ITS 세계총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글로벌 무대로 더욱 확대하고, 학술·전시·비즈니스 프로그램 또한 한층 고도화하여 세계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은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개최가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글로벌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세계총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ITS Korea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사무국
김 아 영

그간 추진 경과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2025년 10월,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조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릉시장이 공동 총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현대자동차 전무가 대외협력위원장을 수행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명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해 총회 준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무 준비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조직위원회 출범에 앞서 2025년 6월 개소하였으며, 강릉시·한국도로공사·강원특별자치도·ITS Korea가 공동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9월에는 국제회의기획사(PCO) 선정을 완료하며 행사 운영,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 기획 등 총회 전반의 실무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국내외 홍보활동 진행

강릉 ITS 세계총회는 2022년 개최지 확정 이후 국내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ITS 세계총회와 미주·유럽·아태 지역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ITS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 두바이 ITS 세계총회와 2025년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 등에서는 강릉 홍보관 운영과 국별 면담을 통해 총회를 적극 알리고 참가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와 기관, 기업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참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 두바이 ITS 세계총회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

BOD 및 IPC 회의 개최

2026년 3월에는 APBOD(Asia-Pacific Board of Directors)·WCBOD(World Congress Board of Directors) 회의와 IPC(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 회의를 강릉에서 개최하여, 강릉 ITS 세계총회의 준비 현황과 학술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BOD 회의에서는 총회 준비사항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하였다.



주요 행사장 현장시찰



IPC 회의

또한 선교장, 컨벤션센터,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도시정보센터 등 주요 행사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어 진행된 IPC 회의에서는 강릉 세계총회의 주요 회의 주제와 세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접수된 논문 및 특별세션에 대한 심사·배정 작업을 수행하며 글로벌 ITS 트렌드를 반영한 학술 프로그램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프로그램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의 수요를 반영한 입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장관회의, 공식·사교행사, 학술세션, 전시회, 기술시연 및 시찰, 시민참여형 부대행사 등을 통해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글로벌 ITS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2026itsworldcongres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www.2026itsworldcongress.org)

장관회의

총회 기간 중에는 약 20개국 교통·도로 분야 장·차관 및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와 AI 기반 ITS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관회의 주제와 연계한 기초연설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AI 활용 방향과 한국의 정책 인사이트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학술세션

학술 프로그램은 ITS 세계총회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글로벌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이동성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를 주제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AI·ICT·빅데이터 기반의 융합형 미래 교통체계를 제시하고, 사람과 도시,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전(Safety), 포용성(Inclusivity),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핵심 키워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주제	이동성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논문주제	I. Sustainability & Safety II. Inclusive & Social Connection III. Shared Mobility & Resources IV. Localized ITS	1. Connected & Automated Driving 2. Smart Infrastructure & Traffic Management 3. Mobility Services 4. AI-Driven & Data-Centric Systems 5. Policy, Governance & Standards

전체 프로그램 구성(안)

시간	10월 19일(월)	10월 20일(화)	10월 21일(수)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09:00-10:00		전체회의1	전체회의2	전체회의3	학술 세션
10:00-11:00	개회식				전시회 & 기술시찰·시연
11:00-12:00	전시장 개관식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12:00-13: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00-14:00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14:00-15:00	장관회의 (Roundtable)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폐회식
15:00-16:00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16:00-17:00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17:00-18:00	웰컴 리셉션				
18:00-	드론쇼	VIP 디너	갈라 디너	특별공연 (아이스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논문과 특별세션을 모집한 결과, 총 501편의 논문과 143개의 특별세션이 성황리에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온라인 심사와 3월 IPC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논문 499편과 특별세션 100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의 3개, 집행회의의 9개, 특별세션 100개, 논문세션 81개 등 총 193개의 학술세션을 구성하였다.

전시회

전시회는 글로벌 ITS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전시공간과 다양한 비즈니스·네트워킹 공간으로 구성된다. 총 425개 규모의 전시부스는 2025년 8월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99개 기업·기관이 385개 부스 참여를 확정하여 전체 부스의 90% 이상이 예약 완료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시장 내에는 ITS 수요·공급자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잠재 파트너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비즈매칭 시스템을 지원하며, 컨퍼런스 스테이지에서는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ITS 피칭 세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릉 ITS 세계총회가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장 도면



기술시찰

기술시찰 프로그램은 ITS 세계총회 참가자들에게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의 우수한 ITS 운영 사례와 첨단 기술력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다. 강원권과 수도권의 주요 ITS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시찰을 구성하여, 실제 교통·재난·도로 관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ITS 기술과 운영체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ITS의 기술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글로벌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제 협력과 산업 교류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술시찰 프로그램

기술시찰지	주요내용
 <p>강릉시 도시정보센터 & ITS현장설비 시연</p>	<p>강릉시 도시정보센터 견학 + 시연 (시연1)실시간 신호, 주차정보, 초정밀 버스, 스마트교차로 등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 집중 (시연2)화전교차로, 터널관리, 스마트횡단보도, 객체 검지시스템 등 안전 관제 기술 집중</p>
 <p>인제양양터널 & 내린천휴게소</p>	<p>국내 최장 도로터널로, 터널 내 환기, 화재 대응, 비상통신 등 스마트 터널 관리 시스템 (내린천휴게소) 국내 최초의 도로 위 상공형 휴게소</p>
 <p>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 고성 통일전망대</p>	<p>AI 기반 산불감지 시스템을 통한 산불 접수, CCTV를 통한 산불상황관제 및 시스템 운영 (통일전망대) 대한민국 동쪽 최북단 안보 거점으로 금강산 및 해금강이 보이는 전망대</p>
 <p>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 덕평휴게소</p>	<p>전국 고속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 등 고속도로 ITS 기술 (덕평휴게소)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 대규모 고속도로 휴게시설</p>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개최를 향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대한민국 ITS 기술과 정책 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중요한 국제 플랫폼이 될 것이다.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ITS는 단순한 교통체계를 넘어 도시와 산업, 환경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강릉 세계총회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과 글로벌 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등록이 공식 오픈되어 전 세계 참가자들의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은 보다 많은 글로벌 ITS 관계자와 기업·기관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와 참가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과 행사 운영,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며,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세계총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총회가 대한민국 ITS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 확대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음 기고문에서는 강릉 ITS 세계총회의 주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과 특별행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ITS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 및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 이미지

